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제4차 민생현장 방문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관련 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코로나 소상공인 부채 특단의 대책 세워야”**

- 박홍근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 4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 박홍근 원내 “2차 추경은 완전한 코로나 손실보상 이룰 터”
-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잠재위험에 대한 현황 설명 청취
-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고충 듣고 채무조정 등 대책 논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4월 27일(화) 오전 10시30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관련 민생현장을 방문한다. 이는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4.06),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4.13), 쌀값 정상화 관련 민생간담회(4.20)에 이어 네 번째 민생일정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이 날 방문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예결위 간사, 천준호 원내기획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이동주 민생부대표, 강민정 소통부대표 등이 참석하여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여 참여한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 김일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회장, 조광훈 웨딩업대표 등으로부터 코로나 19로 늘어난 채무부담의 고충에 대하여 듣는다.
 - 또,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코로나 채무 현황을 듣고 해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방문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무엇보다 걱정된다” 며 “채무부담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소호흡기로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2021년 말 909.2조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에 따른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부 부채탕감 등의 채무부담 완화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의 재무적 취약성이 더욱 가속화됐다” 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여 일부 채무 감면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해야 하고, 코로나 재난 시 사용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형 PPP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2차 추경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2. 4. 27.(수)



원내대표 박 홍 근